

# 동아리는 늘어가는데 갈 곳은 없다

## 동아리 방 재배치 결과 발표 연기

동아리 방(이하 동방) 재배치 최종결과와 발표가 늦춰졌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서는 지난 11일 1차 재배치 결과를 발표할 뉘 17일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방 재배치에 불만이 있는 동아리들의 청원서 제출로 최종발표를 연기했다.

동연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자체 평가를 통해 동방을 재배치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우리 학교의 문화 다양성 증진 ▲우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대외활동 여부 ▲동아리 구성원이 아닌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 여부 등이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총 51개의

동방이 있다. 하지만, 동아리 수는 ICU와의 통합으로 인해 74개로 늘었다. 따라서 1차 동방 재배치에서 몇몇 동아리가 동방을 공유하거나, 동방을 아예 배정받지 못했다.

1차 발표 후, 대부분 동아리는 동연의 결정에 수긍했으나 종교동아리인 IVF, 네비게이토와 종교동아리를 총괄하는 종교분과연합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 IVF 동방을 IVF, 네비게이토, SFC 세 동아리가 공유하라는 1차 동방 재배치 결과 때문이다. 세 동아리에 따르면 셋 모두 기독교 동아리지만, 활동 성격이 매우 달라서 동방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동연 회장단과 각 동아리 회장단의 회의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던 IVF가 현행대로 동방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결

정했다. 반면, 네비게이토와 SFC는 동방이 없어질 예정이다.

SFC의 민병철 회장은 “동방이 갑자기 사라진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종교 동아리의 특성상 외부적인 활동결과가 두드러지지 않아 평가점수가 대부분 하위에 그치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현재 동방 재배치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동연 변규홍 회장은 “ICU와의 통합과 신입생 증가 등의 이유로 예전보다 동아리 수가 10개 이상 늘어났다”라면서 “동아리를 비롯한 학생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이 좀 더 확충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bmysun@kaist.ac.kr

## ‘과학과 행복의 관계’를 주제로 한 제1회 TEDxKAIST 행사 열려

지난 11일 창의학습관에서 우리 학교 학우들이 직접 주최하고 기획한 TEDxKAIST 행사가 열렸다. 강연은 ‘과학과 행복의 관계’라는 주제로 연사 7명의 연설과 3개의 TED 동영상 강의로 구성되었다. 연사로는 우리 학교 인문사회과학과 노영해 교수, 세트랙아이 박성동 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각 연사는 주로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와 과학과 행복을 접목하는 방향에 대해 전했다.

연설이 끝난 뒤 포럼 시간에는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받은 청중의 질문들을 모아 연사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로 참여한 기업호민관 이민화 박사는 “이런 행사를 통해 주최하는 학생, 연설자, 청

중 모두가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애프터파티에서는 항공우주공학전공 이소연 교수가 특별초청되어 우주공간에서의 체험을 생생히 전했다. 그 자리에서 이 교수는 우주인이 되기 위한 선정과정과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 그에 따른 일화에 관련된 영상들을 공개했다.

TEDxKAIST 기획단인 방기수 학우(무학과 10)는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연사님들의 좋은 강연으로 많은 분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현은정 기자

ekwlrkw@kaist.ac.kr

# 체력단련실 관리부실

## 고장난 기구 방치해 안전 문제 발생하기도

아름관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남학우와 함께 운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여학우가 많이 찾는 곳이다. 또한, 24시간 개방하고 기숙사 안에 있어 늦은 시간에도 학우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체력단련실을 자주 이용하는 이민주 학우(무학과 10)는 “방에서 가까운 곳에서 바로 운동할 수 있어 편하므로 자주 이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학우가 아름답관 체력단련실의 관리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 고장나고 오래된 운동기구 관리 소홀

많은 학우가 체력단련실의 기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다. 이 학우는 “녹이 슬고 오래되어 건드리기조차 꺼려지는 운동기구도 있다. 많은 학우가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상태가 심각했다. 아령에는 녹이 많이 슬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총 6개의 헬스 사이클 중 4개는 작동하지 않았다. 사이클론은 삐걱거림이 심해 이용할 수 없는 정도였다. 이 지이 학우(무학과 10)는 “사이클론은 지난 학기에 고장 난 것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거꾸리’는 손잡이 부분이 많이 녹슬어 있었다. 정희정 학우(무학과 10)는 “거꾸리를 이용하다가 뽀족하게 깎인 녹슨 쇠막대에 허벅지를 긁혀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위험해서 사

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쾌적하지 못한 시설 내 청결 상태

학우들은 체력단련실의 청결 상태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정 학우는 “주로 매트 위에서 체조하는데, 매트나 바닥이 너무 더럽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면 발이 새까맣질 정도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아름답관 체력단련실은 지하인데다 환풍기도 작은 것 두 개가 구석에 설치된 탓에 환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 제대로 건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재 체력단련실 관리는 학생복지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체력단련실의 청소와 기구 관리는 외부업체에 맡긴 상태다.

오성권 학생복지팀장은 “운동기구를 정확히 언제 사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기계가 완전히 고장 나거



위험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 피경은 기자  
아름관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의 ‘거꾸리’ 기구. 한 학우는 사진에 보이는 녹슨 쇠막대기에 허벅지를 긁혀 상처를 입었다

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 없다고 알고 있다”라며 기존 기구를 교체할 계획은 없으며 만약 녹이 슬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은정 기자

ekwlrkw@kaist.ac.kr



취업박람회 부스 행사

© 구건모 기자  
KI빌딩 1층에서 진행된 취업박람회 부스 행사에서 학우들이 취업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 취업 도움 위한 취업박람회 열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2010 카이스트 취업박람회(이하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학우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준비를 돕기 위한 행사로,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 열린 취업박람회였다. 26개의 기업이 참가한 취업박람회 부스 행사와 함께, 전문가 초청 강연, 취업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었다.

취업박람회 부스 행사는 KI빌딩 1층에서 행사기간 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KT, 엔씨소프트, 현대중공업 등이 참가했고, 3일간 약 1,200명의 학우가 다녀갔다. 부스 행사 외에도 채용설명회, CEO 특강 등 총 8개의

강연이 열렸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지문적성검사는 많은 학우가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취업/면접/자기소개서/영문소개서 총 4개 분야에 대한 1:1 컨설팅도 진행해 총 56명의 학우가 컨설팅을 받았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강운태 학우(바이오및뇌공학과 석사과정)는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의 기획, 진행을 총괄했던 광영출 학우(물리학과 07)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학우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였다. 50일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막상 진행을 하고나니 너무 뿌듯했다. 준비 과정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15@kaist.ac.kr

## 우수한 영문 보고서 베스트 어워드 시상

지난 14일 2010년 봄학기 영어 강의 인문사회선택과목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Best Paper Award’의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영어강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문화과학대학과 EFL 프로그램에서 공동개최한 이날 행사는 인문사회선택과목의 담당교수가 우수논문들을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해 시상했다. 선정된 보고서는 EFL 프로그램 홈페이지(kefl.ka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준 기자

kyj815@kaist.ac.kr